

2. 인문Ⅱ

■ 제시문 소개

제시문 [가]는 이주현이 저술한 『이주현의 프랑스 미술 기행』에 실린 ‘칼레의 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발췌하였으며, 외스타슈라는 이름의 칼레 지도층 인사가 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독서』, 비상교육(한철우 외), 2019, 199~201쪽)

제시문 [나]는 헤이르트 호프스테더가 저술한 『세계의 문화와 조직』에 실린 ‘평등 문화와 불평등 문화’의 일부이다.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마다 다르며, 지도층 인사의 리더십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복종 정신이 따라주는 경우에만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출처: 『독서』, 천재교육(박영목 외), 2019, 130~131쪽)

제시문 [다]는 연합뉴스에 실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 관계’라는 제목의 글이다. 인종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던 ‘짐 크로법’에 대해 미국 시민들의 오랜 저항이 있었으며, 그 결과 1960년대 차별을 철폐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될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정치와 법』, 지학사(서범석 외), 2019, 18쪽)

제시문 [라]는 미국과 중국의 1990-2020 사이의 GDP 규모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a는 2010년 이코노미스트가 예측한 GDP 규모의 변화로서 2010년 이전까지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예측한 것이며, 그림 b는 2020년 현재 세계은행이 보고하고 있는 실제 GDP 규모의 변화이다. (2010년 12월 17일, 이코노미스트 기사, Brian Wang 및 2020년 세계은행 자료)

제시문 [마]는 제한된 범위 내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범위 밖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글이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대기 온도 간에는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그 상관관계는 섭씨 10도 이상에서만 존재하며, 그 범위 밖으로 나가면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의 주식시장 변화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주가지수 등에 대해 예측하는 것의 위험성도 보여주는 글이다. (2013년 6월 7일, 머니투데이 기사, 박정태 칼럼)

[문제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비교하십시오. [20점]
[문제1-(2)] 제시문 [나]의 불평등에 대한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짐 크로법」에 대해 논하십시오.
[20점]

■ 출제의도

인문·사회과학 지식 습득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주장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항 1-(1) 문제는 수험생들이 적절한 언어와 논리적 구성을 통해 상이한 주장들을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들을 특정 기준에서 평가하고 논할 수 있는 능력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문항 1-(2) 문제는 수험생들이 특정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출제하였다.

■ 우수답안

(1) 제시문 [가]의 저자는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따라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이 자신들의 지도층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의 저자는 권위는 복종이 따라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추종자의 복종 정신과 존대 개념을 고려하여 통치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지도층 인사들이 추종자들의 문화와 생각을 고려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제시문 주장들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제시문 [가]는 지도층 인사들이 하향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희생할 것을 강조했음에 반해, 제시문 [나]는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상호적 관계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제시문 [나]의 저자는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을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불평등은 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불평등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짐 크로법을 비롯한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제도들은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뿐 아니라 다수의 백인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짐 크로법 폐지를 주장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짐 크로법은 시민권법, 투표권법 등과 같이 미국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 평등을 규정한 법률들로 대체되었다.

■ 우수답안 분석

문항 1-(1)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 측면에서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점에서 지도자들이 스스로 희생하고 모범을 보일 경우에만 시민들이 지도자들을 믿고 따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는 지도층 인사들과 추종자들 간의 상호적 관계를 중시하며, 복종 정신이 있는 경우에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수답안은 이러한 두 제시문의 주장들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있다.

문항 1-(2)는 제시문 [나]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제시된 짐 크로법에 대해 논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나]의 저자는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이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마다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수답안은 이러한 제시문 [나]의 관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짐 크로법의 불평등은 미국 시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법, 투표권법과 같은 법률들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적절하게 논하고 있다.

[문제2] 제시문 [마]의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제시문 [라]는 과거에 일어난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자료의 수집 범위를 벗어나 예측하는 것은 많은 학자에 의하여 비판받는 예측 방법이다. 미국과 중국의 GDP 예측 규모와 실제 규모의 차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수집된 자료는 그 범위 안에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그 범위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귀뚜라미의 울음과 온도 사이의 관계성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이 되며, 그 범위 밖으로 나가서 예측하려고 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유검증위원회 역시 과거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도 방법론적 오류를 내포한 예측으로서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귀뚜라미의 울음과 은유검증위원회의 예를 통해 예측 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이코노미스트의 틀린 예측을 설명해 내는 것이 이 문제를 출제할 의도이다.

■ 우수답안

제시문 [마]의 귀뚜라미의 한계는 귀뚜라미의 울음 속도와 온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10도씨 이상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낮을수록) 귀뚜라미 울음의 속도가 빨라지지만(느려지지만), 10도씨 아래에서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제시문 [마]의 은유검증위원회는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발생한 패턴에 기반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경계하여 만든 위원회다.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은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그 패턴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제시문 [라]에 나타난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의 예측과 실제 사이에 나타난 괴리는 이코노미스트가 예측한 2010년 이후 중국의 GDP 규모의 변화가 실제와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2010년 이코노미스트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국 GDP 성장률에 기반하여 2010년 이후를 예측하였고, 그 예측은 실제와 매우 달랐다.

귀뚜라미의 한계 및 은유검증위원회가 함축한 의미를 통해 이 괴리를 해석해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가진 중국의 높은 성장률이란 1990년과 2010년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어도, 자료가 수집된 범위를 벗어난 2010년 이후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 미래가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까지의 주가를 이용해서 내일의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현재까지의 인구변화를 바탕으로 100년 후의 인구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예측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마]의 귀뚜라미 울음과 은유검증위원회의 예를 통해 자료가 수집된 범위 밖을 예측하거나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귀뚜라미 울음과 은유검증위원회의 예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에서 예측과 실제 간 괴리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한다. 2010년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은 그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자료의 수집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I]을 읽고 2020년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구하시오. [12점]

2020년 A국의 경제 상황

연령	15세 미만	15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총합
인구수	200	200	500	300	1200
경제활동인구	N.A.	150	400	170	720
비경제활동인구	N.A.	50	100	130	280
취업자	N.A.	135	373	140	648
실업자	N.A.	15	27	30	72

주: N.A.는 해당 수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2) 2021년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경제학자 B씨는 “2020년에 비하여 고용 상황은 개선되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경제학자 B씨의 주장에 대하여 [I]에서 설명한 실업률과 고용률에 기초하여 평가하시오. [12점]

2021년 A국의 경제 상황

연령	15세 미만	15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총합
인구수	200	200	500	300	1200
경제활동인구	N.A.	100	350	150	600
비경제활동인구	N.A.	100	150	150	400
취업자	N.A.	90	330	130	550
실업자	N.A.	10	20	20	50

주: N.A.는 해당 수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3) [II]에 등장하는 허생의 고용 상황을 [I]에서 소개한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6점]

■ 출제의도

- (1) 지문에 소개한 개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적용
- (2) 지문에서 소개한 경기상황 변화에 따른 실업률과 고용률의 변화에 대한 이해
- (3) 지문에서 소개한 비경제 활동 인구 개념에 대한 이해 확인

■ 우수답안

(1) A국의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text{경제활동인구}/\text{노동가능인구}=720/1000=0.72$ 로서 72%이다. 실업률은 $\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72/720=1/10=0.1$ 로 10%이며, 고용률은 $\text{취업자}/\text{노동가능인구}=648/1000=0.648$ 로 64.8%이다.

(2) A국의 2021년 실업률은 약8.3%($=50/600=1/12$)로 2020년 실업률은 10%보다 약 1.7%p개선되었다. 2021년 고용률($=550/1000=0.55$)은 55%로 2020년 64.8%보다 9.8%p 악화되었다. 2020년에 비하여 실업률은 낮아져 고용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용률도 낮아져서 실제 고용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학자 B씨의 주장은 타당성이 약하다.

(3) 아내가 제안한 일(공장, 장사치 등)에 대하여 허생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한 점, 그리고 십 년 기한으로 책을 읽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생은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된다.

■ 우수답안 분석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1)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문항 (2)에서는 적절한 경기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률이라는 한 가지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실업률과 고용률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문항 (3)에서는 지문에서 소개된 비경제 활동 인구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